

금호타이어 ‘흑자전환’... “올 최대 실적 낸다”

전년비 36.8% ↑... 3년만에 흑자 영업익 231억... 경영정상화 속도 노사관계 회복 등 성장발전 토대 올해 창사 이래 최대 4조대 목표

호남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불경기 속에서도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 간 합의로 마무리하는 등 악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금호타이어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2000억대를 목표로 세우고 수

익성 개선에 나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8% 증가한 3조559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31억원으로 2.3%p 증가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원자재와 물류 운반비 상승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주요 시장 가격 인상 효과와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상승은 판매 단가 인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중점적으로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다. 또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지역의 차량 생산 증가에 따른 신차용 타이어 판매 증대와 교체용 타이어의 안정적인 판매 역시 매출액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금호타이어가 3년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경영 정상화에도 정신호가 켜졌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노사 간 합의로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온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불확실

성도 떨어졌다. 경기침체와 차입금 만기 도래, 유동성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컸지만, 원만한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경영 안정화와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판매 증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를 매출 증대의 해로 삼고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2700억원의 목표를 수립, 그동안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 온 연구개발(R&D)을 통한 프리미엄 제품 공

급과 글로벌 유통 확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도 이어 나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관계자는 “올해 금호타이어는 국내 및 Fed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타이어 시장 속에서도 주요 시장 타이어 판매 확대, 고인치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완성차업체 공급 물량 확대 및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해 매출증대를 모색하고 고수익 제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단가 인상과 내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도심 속 꽃동산’ 광주신세계가 본관 1층 광장 플랜트 하우스에 다채로운 봄꽃으로 작은 정원을 조성해 봄 향기를 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정원에는 포토존과 힐링쉼터 공간이 마련됐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꽃동산 분위기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대차·기아, 초고온 수소 연료전지 개발 추진

美 어드벤처와 공동 연구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수소 사회 대중화를 위해 고온형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MEA(막전극접합체) 생산 업체 ‘어드벤처 테크놀로지스’와 안정적이면서 가격을 낮춘 연료전지 MEA 개발에 나선다.

23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어드벤처 본사에서 초고온 수소 연료전지용 MEA 개발을 위해 어드벤처사와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어드벤처는 미국의 수소연료전지 전문 소재 생산 업체로, 고온형 연료전지용 MEA 생산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2024년 말까지 초고온 수소 연료전지용 MEA 및 스택의 핵심 기술 확보를 목

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 200℃에서 정상 작동되는 초고온 연료전지 시스템은 100℃ 이하에서 구동하는 저온형 연료전지에 비해 안정적이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연료전지는 향후 항공, 선박 등 대형 이동수단의 차세대 친환경 동력원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초고온에서도 작동하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친환경 모빌리티 확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동 개발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자체 개발한 이온전달소재 및 촉매를 어드벤처에 공급한다. 어드벤처는 이를 활용해 초고온 연료전지 구동에 필요한 MEA 생산과 공정 기술을 지원, 생산된 소재는 개발 단계별로 성능을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지역중기 제품, 공공기관 판로·지원 확대 시급”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조사 79% “지역제한 경쟁입찰 미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공기관 납품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입찰 자격 및 계약 조건이 까다로움’(19.0%)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의 구매정

보를 얻기 어려움’(18.7%) ‘중소기업자간 과당 경쟁’(17.3%) ‘발주 물량 감소’(14.4%) 등의 순이었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용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았으며 ‘활용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3.1%, ‘적극 활용한다’는 20.2%로 가장 적었다.

또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 중소

기업 제품을 최우선으로 우선 구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6월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나주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 및 광주·전남 협동조합계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상생 협의회를 출범,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난해 지역상생 협의회를 출범했으나, 실질적 지역 제품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식과 판로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은행 노조 ‘얼라인파트너스 주주제안’ 반발

배당 확대 등 철회 요구 지역공공재 역할 역행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JB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JB금융지주 2대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사에서 제시한 배당 확대와 금융사 출신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JB금융지주 자회사인 광주은행, 전북은행, JB우리캐피탈 노동조합이 속해 있다.

23일 협의회에 따르면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은 (사모펀드에 휘둘리지 말고) 현명한 선택과 결단력으로 적극 대응

해 JB금융지주 내 모든 직원들을 반드시 사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역민과 상생을 저해하고 고객과 임직원에게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는 악덕 주주의 파렴치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주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일각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역할에 대해 선진적 주주원정책 도입에 앞장서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반해, 여론몰이를 하며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단기차익만을 노리고 먹튀하려는 의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주제안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순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JB금융지주의 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속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행은 폭넓은 지역 공헌 및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 상생’ 가치를 높이는 ‘지역공공재’로서의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 있고, 이는 지방은행의 의무이자 설립 목적”이라며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 사항은 ‘지역 공생 기업’ 역할에 대한 당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단기수익 추구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소명에 순응해 본질적 미래 기업 가치를 중시하며 일부 주주의 욕망과 속셈에 휘둘리지 않도록 김기홍 회장과 JB금융지주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변칙의 시대, 투자정석은 ‘지켜 보기’

불과 10여 일 사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등이 파산했다. 유럽의 크레디트스위스(CS)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몰려 파산수 됐다. 새로 찾아온 봄, 세계 경제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기도 전에 터진 파산으로 세계 경제 또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최대 과제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리고 장기간 고금리를 지속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기업의 연쇄도산과 은행의 파산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다. 금리인상을 멈추고 다시 양적완화(돈풀기)를 했을 경우도 이미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이 가속돼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마도 연준은 금리를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험에 빠진

은행이나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이미 연준은 은행 등이 소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면 예전에 매입했던 가격으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급히 만들어 냈다. (금리가 오르면 과거 매입한 국채 가격은 하락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칙을 동원한 유동성이 다시 공급 된다면 이제는 막강했던 미국 달러의 위상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달러 패권에 맞서는 금값이 사상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4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얼핏마찬가지로 양적완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시기하고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지만 지금은 저금리(양적완화) 때문에 발생한 50년만의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정중앙에 서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

상황도 인플레이션을 넘어 최악의 스테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적절한 해법을 마련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계 경제에 대공황의 쓰나미가 덮치는 장면은 보게 될지도 모른다.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분산시킨 후 잠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산시장은 매일 열리고 투자자의 수중에 투자할 자금만 남아있다면 언제든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 굳이 컴컴한 먹구름을 보면서 길을 떠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